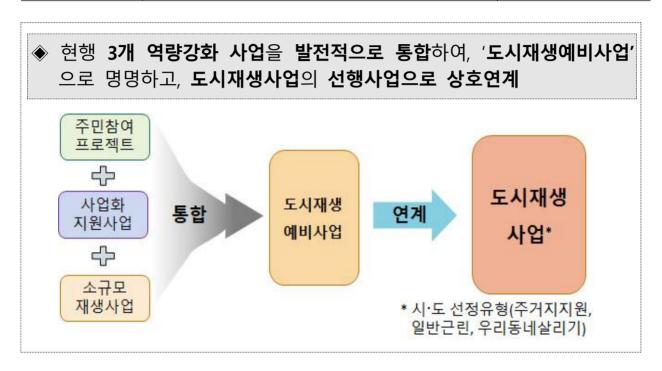
	국토교통부	보	도 자 료	내 삶을 바꾸는
		배포일시	2020. 9. 22.(화) 총 3 매 (본문3)	도시재생 뉴딜 로드맵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(도시재생역량과)	물 경 사	과장 조성균, 서기관 조인창,☎ (044) 201-4915, 4916	주무관 강근하
	한국토지주택공사 (도시재생지원기구)		 기구장 김유미, 부장 김정훈, 차 ☎ (042) 866-8465, 8328 	장 왕주영, 선임 제현정
	보도일시	2020년 9월 23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3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주민역량강화사업 통합…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격상 -23일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 첫 공모…약 80곳 선정·총 100억 지원
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 사업으로 통합하고, 23일부터 첫 '도시재생예비사업' 공모를 시작 한다고 밝혔다.
 - '도시재생예비사업'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'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,' '사업화지원 사업,' '소규모재생사업'을 '도시재생예비사업'으로 통합한 것으로,
 -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(1년 이내)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·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(1곳당 최대 2억 원)하는 사업이다.
 -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.
- □ '도시재생예비사업'은 기존 '소규모재생사업'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, '주민참여프로젝트'와 '사업화지원' 사업에서 추진 하였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과정 지원 관련 컨설팅을 추가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세심하게 고안되었다.

<기존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개요 >

구 분	개 요	′19년 예산
주민참여프로젝트	주민 창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, 협의체 운영비 지원	15백만원/팀(3.5억원)
사업화지원	주민이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비·사업비 지원	5~10백만원/팀(3.5억원)
소규모재생사업	주민이 소규모로 도시재생사업을 경험하는 준비사업	최대 2억원/개소 (100억원)



- □ 기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한 만큼, '22년 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하여 시·도가 선정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 - 단, '22년에 개편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, 지자체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, '21년 시·도선정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(또는, 소규모재생사업)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 - * 단, 기 선정되어 추진중인 소규모재생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기초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'21년 시·도 선정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
- □ 이번 공모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.
 - ① (충분한 준비기간 부여)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 후 최초 시행 되는 공모이므로,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할 수

있도록 8주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하였고, 내년 초부터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.

- ② (뉴딜 연계강화) 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, 기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추진 성과('20년 11월말 기준)가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, 성과가부진한 지자체에는 벌점(패널티)을 부과할 계획이다.
- 또한, 예비사업을 추진 한 후 그 성과가 향후 뉴딜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될 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하여, 예비사업과 미래 뉴딜사업간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③ (컨설팅 권고) '지역 자원조사·마을문제 해결 등 사업계획 구체화 및 창업육성' 사업은 그간 주민들만으로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,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였다.
- □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 11월 13일부터 4일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하고,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친 후 12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.
- □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"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하였는가에 달려 있으므로,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충실히 하여 그 성과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"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기획단 도시재생역량과 조인창 서기관(☎ 044-201-49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.